

중국인의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 실증연구

주민욱*

目 录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중국인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 실증분석
4. 결론

1.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이다. 그리고 이 행위를 온라인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존 의견표명 연구와의 차이점을 매스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두었다.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검증하고 있다(예를 들어: 양기석, 2000; 양승찬, 1998a, 1998b; Katz & Baldassare, 1992; Price & Allen, 1990; Shamir, 1995, 1997; Tokinoya, 1989, 1996; 崔蘊芳·沈浩, 2005; 梅琼林, 2007). 이들 논문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현실세계의 의견표명 행위를 검증하였음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인간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시대변화 측면에

* 濟州大學 法與政策研究院 專職研究員

서 허구세계, 즉 온라인 내 의견표명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의 경우 사람들의 온라인 의견표명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연구 대상은 중국인이다. 물론 중국의 기존 연구에서 인터넷 공간 내 사람들의 의견표명 현상을 연구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은 문헌연구(馬學清, 2005; 楊芳芳·晉曉兵, 2005), 사례연구(陳華明·李暢, 2009), 일부 실증 연구(謝新洲, 2003; 夏志梅·彭光芒, 2006) 그러나 이마저도 단순통계 분석에 그치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의 의견표명 현상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중국인 네티즌으로 선정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나타내는데 보다 용이한 인터넷 환경에 집중하였다. 한중 간 우호적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보다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나타내는데 적극적인 중국인을 이해하는데, 이들의 의견표명 행위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이다.

특히 중국인의 온라인에서의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는 이미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주민욱(2015, 2016)은 이들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를 서베이(survey)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와 달리 실제 중국인이 작성한 댓글을 분석하여 이들의 의견표명 정도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방식 설문조사와 실험실 연구조사법이 오프라인상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데 비교적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수집하는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여론과 의견표명을 탐색하는데는 내용분석이 가장 합당한 연구방법이다(박성희·박은미, 2007). 본 연구도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의견표명을 알아보는데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보다는 내용분석이 합당하다 판단하고 이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1) 연구방법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은 “인터넷 게시판의 설문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생각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박성희·박은미, 2007, p.301). 개인적인 관심이나 의지, 참여도가 높지 않다면 댓글을 다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는 행위 자체가 그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임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것은 물론 이를 단순히 읽는 것 역시도 일정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의견표명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이들이 작성한 댓글에 집중한다(예를 들어 夏志梅·彭光芒, 2006; 박성희·박은미, 2007; 최동성 외, 2008; 권상희·김익현, 2008; 朱珉旭, 2012). 댓글 수를 근거로 네티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역시 사람들의 댓글을 다는 행위를 적극적 의사표현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기간 내 댓글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의견표명 정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온라인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의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살펴보았다(시간적 비교). 둘째 의견표명 행위의 두 주체 다수와 소수 간 의견표명 행위를 비교하였다(공간적 비교).

- 연구문제 1. 온라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1에서 시간변수¹⁾는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관찰하는데 필수

적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열렬한 자기표현을 하다가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이유들로 인해 점차 관련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심정도를 줄여 나간다. 실제 개인에게 중요한 이슈(Hayes et al., 2001; Kim et al., 2004)에서는 적극적 의견표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자연스레 관심을 줄여 나간다. 이에 기존 선행연구(최동성 외, 2008; 朱珉旭, 2012)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변화를 보일 것을 예측하고 있다.

- 연구문제 2. 온라인에서 다수와 소수 간 의견표명 행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2는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검증을 바탕으로 실제 온라인에서의 두 충돌 집단, 다수와 소수 둘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여론조사의 경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 상반되는 두 의견이 갈등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 두 집단은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박성희·박은미,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쉬(朱珉旭, 2012)의 연구검증 방법과 ‘순응-저항 모형’²⁾을 활용하여 다수와 소수 상호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1) 본 연구에서의 시간(N) 1은 하루, 즉 1일(日)을 의미한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논쟁을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논쟁을 하지 않는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총 ‘N’으로 설정하였다.

2) 그에 의하면 사람들의 의견표명 여부는 A 혹은 B로 선택되어 질 수 없다. 즉 의견표명 아니면 침묵이라는 흑백논리로 나뉠 수 없다. 그는 개인의 의견표명 의지를 ‘순응(침묵)’과 ‘저항(의견표명)’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순응-저항 모형’은 순응과 저항을 양 끝점으로 하여 개개인의 의견표명 의지를 어느 한 지점에 표시할 수 있는 시각적 모형이다. 다수는 물론 소수의 의견표명 형태 역시 표시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집단의 의견표명 정도와 그 방향을 보다 쉽게 나타낼 수 있다.

(3) 측정방법

본 연구는 주민취(朱珉旭, 2012)의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검증되었다. 우선 다수와 소수의견은 전체 댓글의 내용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수와 소수 각각의 댓글들이 해당 기간 내 어떠한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수와 소수 중 상대 의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사건에 여러 번 지속적으로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개인은 매우 제한적이었다.³⁾ 이후 해당 변인들 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 내 그래프 중 하나인 선도표⁴⁾를 통해 이들의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시각화하였다.

(4) 연구주제의 선택

본 연구에서 인터넷 게시판 선택할 때, 가장 중시 했던 부분은 해당 게시판의 보편성, 연속성 그리고 접근용이성 부분이다. 중국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히 운영되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으며,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우선시했다. ‘티엔야론탄(天涯論壇)’⁵⁾의 경우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연구주제 선택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았다. 연구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선별조건은 첫째

3) 실제 댓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같은 ID 혹은 IP주소로 댓글을 작성한 경우는 연구주제별로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또한 대부분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었다. 이에 다수와 소수 전체 댓글 정도로 두 집단의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4) 다수와 소수 각각에 대해 먼저 SPSS의 그래프 유목 중 ‘선도표’를 선택한다. 이후 ‘단순 선도표’를 선택한다. 범주축에 x요인, 변수에 y요인을 각각 넣는다. 해당 그래프가 출력되면, 도표 편집기에서 ‘데이터 설명 보이기’를 선택하고, ‘선 표시 보이기’ 중 ‘점 표시’, ‘말뚝표시-바닥’을 한다.

5) ‘天涯社區’로 불리기도 한다. 1999년 3월 인터넷 서버 개통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8.5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이미 1억 명의 회원을 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 경제, 국제, IT, 부동산 등 30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별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이슈거리가 되고 있을 것, 둘째 상대적으로 충분한 댓글이 달려 있을 것, 셋째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었다. 2016년 상반기 중국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 중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들은 총 3개이며, ‘학교 내 체벌’⁶⁾ (Tokinoya, 1989; 朱珉旭, 2012), ‘2.5일 휴가 정책’⁷⁾ (정부정책: Taylor, 1982; Salwen et al., 1994) 그리고 ‘대만독립국가 인정’⁸⁾ (Lin, & Pfau, 2007) 문제들이다.

2. 이론적 논의

1)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발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computer mediated) 다양한 의견표명 방법이 존재한다. 그 중 인터넷에서 가장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6) <http://bbs.tianya.cn/post-news-347586-1.shtml> : 안후이성(安徽省)의 한 중고등학교(中學)에서 선생님이 과제와 시험문제로 학생의 옷과 목 등을 잡아채자 이를 지켜보던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달려들어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온라인에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체벌(体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었다.

7) <http://bbs.tianya.cn/post-free-5486583-1.shtml> : 2.5일 휴가(2.5天假)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주말을 말한다. 지난 2015년 8월 처음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일부 성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들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이를 따르는 사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후 2016년 4월 1일 일부 시에서(山西省晋中市, 江西省吉安市) 2.5일 휴가를 정식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열띤 찬반의견이 다시금 진행되었다.

8) <http://bbs.tianya.cn/post-333-800180-1.shtml> : 2015년 11월,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쓰위는 인터넷 생방송 중 본인 국적의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 해당 장면은 본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해당 인터넷방송 이미지가 중국 네티즌 사이에 확산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수 있는 대표적 방법으로 ‘댓글달기’ 행위가 있다. 댓글을 다는 행위는 여론형성에 관여하고, 이와 더불어 시간에 따라 여론 형성의 집중도 역시 달리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 댓글은 온라인에서의 여론의 향방에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댓글은 이슈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최동성 외, 2008). 과거 전통미디어 환경에서의 여론형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인터넷에서 댓글을 통한 여론형성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정 기사로 인한 여론은 일순간에 형성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이 급격히 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권상희·김익현(2008) 역시도 게시판이나 댓글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행위를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그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읽는 것 그 자체로도 현실적인 이슈에 참여하고 있는 소극적인 참여라고 주장한다. 비록 소극적인 참여이지만, 읽는 행위만을 통해서도 여론형성에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적극적/소극적 의견표명 및 참여 공간으로써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은 개인의 주요한 의견표명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실제 의견표명 행위도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온·오프라인에서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를 상호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온라인 의견표명 형태는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온라인에서 보다 적게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Ho & McLeod, 2008).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다. 한중(韓中) 간 의견표명 비교에서 역시 한중민 모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의견표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단 그 정도는 한국인에 비해 중국인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주민욱, 2015). 이러한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는 트위터 이용자들에게서도 확인되었는데, 한중 트위터 이용자들 중 중국인 이용자가 한국인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표명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주민욱, 2016).

하지만 박성희·박은미(2007)의 주장은 이와 사뭇 다르다. 이들은 실제 인

터넷 공간에서 여론조사와 설문 응답유형이 네티즌들의 의견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의 온라인에서의 여론지각과 의견표명 행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침묵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 공간에서 역시 다수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관여하는 행위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자연스레 이러한 불안 심리는 승자편승적 여론지각에 영향을 주어 대세 의견을 따르려는 안정심리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중국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의견표명

과거 인쇄매체 등장이전 사람들의 상호 교류 대부분은 직접 전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인쇄매체가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직접전달 방식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간접전달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인쇄매체는 현실생활에서의 복잡한 내용들을 특정 언어와 각종 부호 등을 통해 기호화하여 나타냄으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었다. 또한 인쇄매체 안정보의 중요도 및 열독(閱讀)순서를 조정하여 사람들의 사고를 정형화하곤 했다(郭光華, 2002).

자연스레 사회 내 주류의견이 신문지면의 주요면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다. 반면 소수자의 의견은 나머지 비중도가 적은 공간, 의견광고란 혹은 오피니언란 등에서만 다루어지곤 했다. 이렇듯 이들 소수자 간 정보교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보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 우세의견과 열세의견 간 대립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 및 시·공간상의 격차는 분명한 격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夏志梅·彭光芒, 2006).

하지만 중국 미디어 환경도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를 맞이했다. 중국정부의

언론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에 정부의 관여가 여전하다지만,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다(吳飛, 2005, p.99). 필요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지금이다. 전통미디어에서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한정된 의견표명 기회를 인터넷 공간은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상호 대립하는 두 집단-다수와 소수- 간 의견표명에 소요되는 노력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夏志梅·彭光芒, 2006, p.20).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외부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역시 일반 대중들의 의견표명 행위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전통 미디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은 축소된 반면 개인의 의견을 공개할 수 있는 통로는 더욱 다양화”되었다(陳華明·李暢, 2009, p.156).

현대 사회에서 여론형성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자연스레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전통미디어의 일방향적인(one-way) 정보흐름만으로는 복잡한 사회구조 및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들 전통미디어에만 의존하여 단편적인 정보의 조각을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가는 작업이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도 정보흐름의 상호작용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물론 가치관까지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社會結構)와 사회형태(社會形態) 역시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그 안의 구성원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고차원의 사고구조를 견지해야 함은 불가피한 시대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吳飛, 2005, 90쪽).

그리고 실제 중국 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및 의견표명 측면에 가져온 여러 변화들은 관련 학계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대표적으로 郭光華, 2002; 謝新洲, 2003; 馬學清, 2005; 吳飛, 2005). 중국에서 제4의 매체로써의 인터넷은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획득코자 노력한다. 때로는 그 정보의 발신자가 되는데 주저치 않는다(陳華明·李暢, 2009).

3) 중국의 온라인 의견표명 연구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는 “수신자 입장에서의 자율적 의견교환과 이로 인한 여론형성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郭光華, 2002, 104쪽). 인터넷을 매개로한 커뮤니케이션(internet mediated communication)은 사람들이 개인태도를 형성하고, 의견표명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발신자(말하는 자)와 수신자(듣는 자)가 구분되던 과거와 달리 이 둘 간의 이원대립적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행위를 통해 주변의 다양한 개인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어떠한 개인이든 시간과 노력만 적절히 투자할 수 있다면, 세계의 다원화된 정보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사고체계-독자적인 생각(one's own idea)-가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의견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吳飛, 2005, 91쪽).

중국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개인 의견표명 현상을 인터넷 환경에서 검증하기를 즐겨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연구 보다는 질적연구, 특히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상호 간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내 여전히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 든다는 ‘지지 집단’(예를 들어 謝新洲, 2003; 馬學清, 2005; 楊芳芳·晋曉兵, 2005; 陳華明·李暢, 2009)과, 인터넷 환경의 특화성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진솔한 의견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반박 집단’(郭光華, 2002; 夏志梅·彭光芒, 2006; 朱珉旭, 2014)이 서로 대치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에신조우(謝新洲, 2003)는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를 인터넷 환경 하에서 검증하였는데, 인터넷에서도 사회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지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에 압력을 가하는 다른 네티즌들의 압력행위 방식이 변화하고, 다소 약해졌을 뿐 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천화밍과 리창(陳華明·李暢, 2009)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소수의 침묵현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류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여전히 이들 소수의견을 통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흥미위주의 주제의 경우 비이성적 대화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교류를 추구하는 집단 혹은 개인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침묵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는 더욱 강화되어 가기도 한다. 온라인 내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를 주장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무엇보다 과거 전통 미디어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구분되던 시기와 다른 현재의 상호 혼재된 인터넷 환경에 주목한다. 이들은 온라인 내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가 이러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환경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朱珉旭, 2014). 주민쉬(朱珉旭, 2012)는 인터넷 게시판 내 다양한 주제별로 그 정도와 방향이 다를 뿐 다수집단은 물론 소수집단 역시도 자기 나름의 의견표명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주류의견, 즉 다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소수 또한 이에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고유의견을 견지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귀광화(郭光華, 2002) 역시도 온라인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침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견을 소리 높여 외치고(說得大聲), 열정적으로 소리치는(說得激烈)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의견표명은 인터넷에

서 작용하는 익명성(匿名性)과 민주주의 분위기(民主氛圍)로 인해 가능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아즈메이와 평광망(夏志梅·彭光芒, 2006)은 중국의 주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반일(反日)감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표명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절대 다수가 반일감정을 들어내고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자극적 반일현상을 반대하거나 중립을 지키자는 집단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은 절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일부 중국인은 일본에 대한 자신의 우호적 또는 중립적 의견을 외부로 표현하고 있었다.

3. 중국인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 실증분석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주제 구분은 박성희·박은미(2007)와 朱珉旭(2012)의 방법을 종합하여 채택하였다. 이들은 연구주제 구분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우세형(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분명한 형태), 충돌형(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불분명한 형태) 그리고 극우세형(절대적 다수와 절대적 소수가 있는 형태)이다. 이 구분 방법은 ‘연구주제별’ 구분이 아닌 ‘의견표명 대립 형태별’ 구분으로 네티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확인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학교 내 체벌은 우세형으로 나타났고, 2.5일 휴가 정책과 대만독립국가 인정은 극우세형으로 나타났다.⁹⁾ 학교 내 학생체벌에 관한 문제에서 유효 댓글은 총 386개였고, 이 중에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 찬성 151개(39.1%), 반대 235개(60.9%)로 나타났으며, 의견게시판에서 이 주제가 논의된 기간은 2016년 4월 21일-5월 8일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2.5일 휴가 문제에서 유효 댓글은 총 242개였고, 2.5일 휴가 찬성 46개(19.0%), 반대 196개(81.0%)로 나타났으며, 논의된 기간은 2016년 6월 4일-20일이다. 마지막으로 대만독립국가 인정 문제에서 유효 댓글은 총 679개였고, 독립지지 59개(8.7%), 독립반대

9) 본 연구의 연구주제에서는 충돌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620개(91.3%)로 나타났으며, 논의된 기간은 2016년 1월 12일-28일이다.¹⁰⁾

1) 연구문제 1의 검증

<표 4-1> ‘학생체벌’ 기간-의견표명 정도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 ²	F	p	Durbin-Watson
학생 체벌	다수	다수	13.06	14.065	.726	42.36	.000***	1.852
		기간(日) ¹¹⁾	-	-				
	소수	소수	8.39	11.428	.700	37.26	.000***	1.759
		기간(日)	-	-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학생 체벌	다수	Constant	34.379	3.733		9.210	.000
		기간	-2.245	.345	-.852	-6.509	.000***
	dependent variable: 체벌반대(다수)						
	소수	Constant	25.399	3.175		7.999	.000
기간		-1.791	.293	-.836	-6.104	.000***	
dependent variable: 체벌찬성(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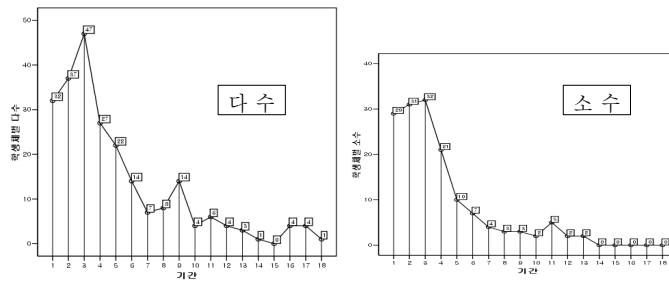
(***p<.001, **p<.01, *p<.05)

학생체벌-우세형의 의견표명 기간과 온라인 의견표명 정도 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두 요인 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다수의 회귀모형은 F=42.36, p=.000<.001, 소수는 F=37.26, p=.000<.001로 모두 유의적인

10) ‘다수와 소수 의견 구분’을 위해 이에 속달 된 중국 대학원생 2명과 연구자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코더 책임자와 이들 학생들 간 종합적 신뢰도 계수 (compositive reliability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수와 소수 의견 구분’에 대해서 0.87의 높은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11) 의견표명 기간이 며칠 동안이었던지는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평균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았다.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수치(다수=1.852, 소수=1.759)가 모두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통계수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량 x와 y간 선형관계가 존재함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1> ‘학생체벌’ 의견표명 변화추이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체벌이 논의된 기간과 사람들의 의견표명은 상호간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다수: $t=-6.509$, $p=.000<.001$, 소수: $t=-6.104$, $p=.000<.001$). 즉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표명을 줄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학생체벌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초기에는 양측 모두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표명 정도는 점점 줄어들어 10일 이후부터 급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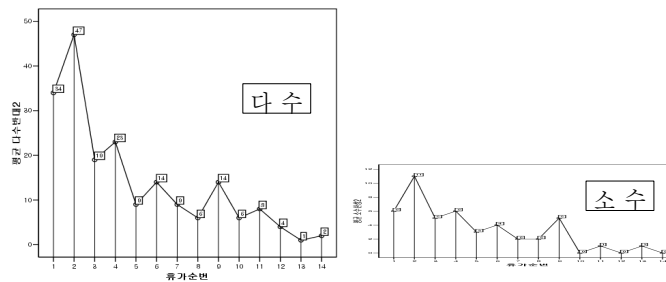
<표 4-2> ‘2.5일 휴가’ 기간-의견표명 정도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 ²	F	p	Durbin-Watson	
2.5일 휴가	다수	다수	14	14.00	13.074	.689	26.538	.000***	1.884
		기간(日)	-	-					
	소수	소수	14	7.50	4.183	.679	25.400	.000***	
		기간(日)	-	-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2.5일 휴가	다수	Constant	33.451	4.287		7.804	.000
		기간	-2.593	.503	-.830	-5.151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반대(다수)					
	소수	Constant	7.901	1.040		7.600	.000
		기간	-.615	.122	-.824	-5.040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찬성(소수)					

(***p<.001, **p<.01, *p<.05)

2.5일 휴가-극우세형에서 다수의 회귀모형은 $F=26.538$, $p=.000<.001$, 소수는 $F=25.400$, $p=.000<.001$ 로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수치(다수=1.884, 소수=1.740)가 모두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이상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2> '2.5일 휴가' 의견표명 변화추이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5일 휴가가 논의된 기간과 사람들의 의견표명 역시 상호간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다수: $t=-2.593$, $p=.000<.001$, 소수: $t=-.615$, $p=.000<.001$). 2.5일 휴가를 찬성하는 집단과 반

대하는 집단 모두 일정 시간 이후 차츰 자신의 의견표명 의지를 줄여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다수와 소수 간 의견표명 축소 형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의 우세형의 경우 양측이 서로 견제하며 차츰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극우세형에서 소수는 다수와 달리 초반에 잠깐 의견표명 의지를 나타내고는 이내 그 의지를 숨겨버리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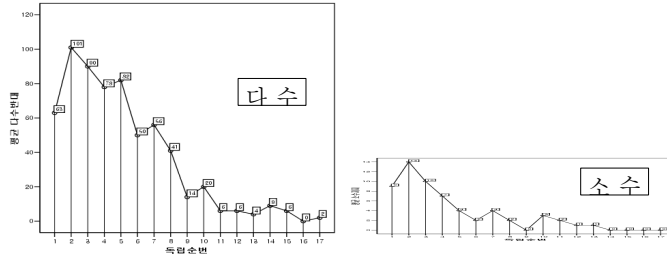
<표 4-3> '대만독립' 기간-의견표명 정도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 ²	F	p	Durbin-Watson
대만 독립	다수	다수	14	36.94	35.356	.834	75.436	.000***	1.783
		기간(日)		-	-				
	소수	소수	14	3.47	4.155	.711	36.834	.000***	1.728
		기간(日)		-	-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대만 독립	다수	Constant	94.493	7.544		12.525	.000
		기간	-6.395	.736	-.913	-8.685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반대(다수)						
	소수	Constant	9.713	1.171		8.294	.000
		기간	-.694	.114	-.843	-6.069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찬성(소수)						

(***p<.001, **p<.01, *p<.05)

대만독립-극우세형에서 다수의 회귀모형은 $F=75.436$, $p=.000<.001$, 소수는 $F=36.834$, $p=.000<.001$ 로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수치(다수=1.783, 소수=1.728)가 모두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이상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3> '대만독립' 의견표명 변화추이

<그림 4-3>에서 나타나듯이 쑨위의 대만국기 논란이 전개된 시기와 의견 표명 간에는 상호간 부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다수: $t=-6.395$, $p=.000<.001$, 소수: $t=-.694$, $p=.000<.001$). 대만독립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단 모두 초반에 열정적이지만, 일정 시간 이후 차츰 자신의 의견표명 의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곳에서 역시 앞서의 극우세형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적극성과 소수의 소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

<표 4-3> '학생체벌' 다수-소수 의견표명 형태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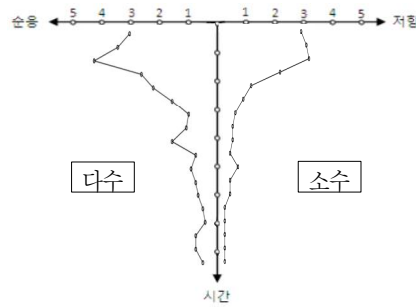
구분	N	평균	sd	R ²	F	p	Durbin-Watson
학생체벌	다수	13.06	14.065	.932	220.85	.000***	1.852
	소수	8.39	11.428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학생체벌	Constant	-1.855	.998		-1.858	.082
	체벌반대(다수)	.785	.053	.966	14.86	.000***

dependent variable: 체벌찬성(소수)

(***p<.001, **p<.01, *p<.05)

먼저 학생체벌-우세형에서 두 의견대립 집단, 다수와 소수 간 상관계수와 회귀계수 등을 통해 상호 간 인과관계 정도를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 간 선형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220.85$, $p=.000<.001$).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우세형의 다수와 소수는 상호 간 정적(正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수가 의견표명을 늘리면 소수도 늘리고, 반대로 줄이면 소수도 줄이는 비슷한 변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4-3> '학생체벌' 순응-저항¹²⁾ 형태

우세형의 '학생체벌 반대-다수'와 '학생체벌 찬성-소수'는 비슷한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논의 기간 동안 두 집단은 의견표명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둘 모두 'V형(型)'의 순응 혹은 저항의 형세를 보이고

12) 순응-저항 형태에서 순응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는 '안정의지' 반면 저항은 이에 맞서서 자신의 소수의견을 굽히지 않으려는 '저항의지'를 바탕으로 형태되어 진다. 상술하였듯이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표명 의지는 이 두 개의 선택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연결 짓는 연결 선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는 자유도가 매우 높은 선택행위이다. 이는 개인의 의견표명 의지를 설명한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특정 개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견표명 의지변화를 살펴 볼 수 없으므로 해서 전체-덧글 수-의 의견표명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수와 소수 각각에서 시간의 흐름-일(日)-에 따른 연결 선을 이을 수 있다. 이 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정점이 1-2개인 V형 또는 3개 이상인 W형으로 나타난다.

있다. 다수는 학생체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학생체벌이 학생을 선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수는 학생체벌이 교사에게 주어진 효과적인 학생체재 수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정수준의 학생체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소수는 다수에 꾸준히 맞서고 있다.

다수와 소수 모두 초기 자신의 의견을 열렬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논의 시작 3일 후 정점을 찍고 난 후 점차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략 7-9일 이후에는 그 줄어드는 정도가 확연하게 완만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수는 18일, 소수는 14일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 4-4> '2.5일 휴가' 다수-소수 의견표명 형태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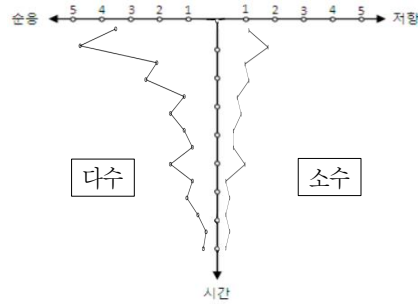
구분	N	평균	sd	R ²	F	p	Durbin-Watson
2.5 휴가	다수	14	14.00	13.074	.894	101.23	.000***
	소수	3.29	3.124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2.5 휴가	Constant	.123	.423		.290	.776
	휴가반대(다수)	.226	.022	.946	10.061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찬성(소수)

(***p<.001, **p<.01, *p<.05)

다음으로 2.5일 휴가-극우세형에서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 간 선형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101.23, p=.000<.001).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극우세형 역시 다수와 소수 상호 간 정적(正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수와 소수는 비슷한 형태로 의견표명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극단적 다수로 인해 소수는 자신의 의견표명 정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4-4> '2.5일 휴가' 순응-저항 형태

극우세형의 '2.5일 휴가 반대-다수'와 '2.5일 휴가 찬성-소수'는 비슷한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 모두 'W형(型)'의 순응 혹은 저항의 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경우 의견표명 정도가 처음 이후 너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V형(型)'에 가깝게 보이기도 한다. 다수는 2.5일 휴가의 한계성, 즉 공무원만 혜택을 받고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을 염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소수는 주 2일 휴무가 정착된 이후 2.5일 휴가 역시 실현 가능하다고, 노동자를 위해 이 제도의 시행이 절실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저항은 뚜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초반에는 다수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다수는 초기 자신의 의견을 열렬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2일 후 정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이를 서서히 줄여 나가다가 4일, 6일, 9일 후 등에서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미미하지만 소수의 의견표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다수의 반박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소수의 초기 의견표명 형태는 다수와 유사하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이후 의견표명을 거의 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다수는 14일, 소수는 13일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만독립-극우세형에서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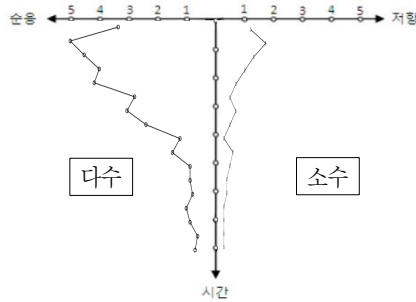
<표 4-5> '대만독립' 다수-소수 의견표명 형태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 ²	F	p	Durbin-Watson
대만독립	다수	36.94	35.356	.771	50.407	.000***	1.604
	소수	3.47	4.155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대만독립	Constant	-.341	.733		-.465	.649
	독립반대(다수)	.103	.015	.878	7.100	.000***

dependent variable: 독립지지(소수)

(***p<.001, **p<.01, *p<.05)



<그림 4-5> '대만독립' 순응-저항 형태

로 나타나 두 변인 간 선형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50.407, p=.000<.001).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곳에서도 역시 다수와 소수 상호 간 정적(正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주제보다 더 극단적 다수로 인해 소수의 소극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다수와 소수 역시 'W형(型)'의 순응 혹은 저항의 형세를 보이고 있다. 다수는 과거 중국과 대만 간 발생한 일련의 정치, 군사 사건들을 나열

하며,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반면 소수는 쩌 위 개인의 실수를 너무 크게 양국 간 정치문제로 보는 시각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초반에 너무도 막강한 다수를 인지한 소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곧 숨죽여 버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수는 초기 자신의 의견을 강렬히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2일 후 정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이를 서서히 줄여 나가다가 5일, 7일, 10일 등에서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약하게나마 소수의 의견표명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소수는 논의 기간 내내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의견표명 의지가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수는 15일, 소수는 13일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연구결과에 대한 소결

연구분석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와 소수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의 의견표명 의지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의 Beta값, 그리고 회귀계수 t값 등을 통해 추정 할 수 있는 부분이다.¹³⁾ 우세형 및 극우세형에서 의견표명 기간(독립변인)과 의견표명 정도(종속변인) 간 해당 값들은 모두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의견을 나타내는 네티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줄여나가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

13)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단위 구분 없이 독립변인이 1 변할 때의 종속변인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단위가 서로 다른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을 한 단위로 표준화한 이후의 상호간 인과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이 1 변할 때 해당 표준화된 회귀계수 만큼의 + 혹은 - 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모든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상관계수 R은 같다.

상 해당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 결국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 체감현상은 시간 흐름에 따른 이들의 ‘피로도’나 ‘관심저하’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다수가 소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치(mean), 표준편차(std. deviation)¹⁴⁾ 그리고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이 값의 표준오류 값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이들 수치들을 2차 그래프 상에 나타냈을 때, 해당 수치 값이 크면 기울기도 커져 상호 변인 간 변화관계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소수 보다는 다수가 자신의 의견표명을 보다 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계분석 검증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의 의견표명 형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연구(朱珉旭, 2012)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세형은 ‘V형’, 극우세형은 ‘W형’¹⁵⁾의 의견표명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은 다수와 소수 서로가 얼마만큼 자주 대립하는가에 따른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즉 해당 이슈에 대한 논쟁 동안 V형의 다수와 소수 간 뚜렷한 충돌은 2회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W형은 3회 이상의 충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대립 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이는 다수 혹은 소수를 가려내고, 그 정도를 가늠하는 개인의 주변 의견 분위기(the climate of opinion) 인지능력에 기인하고 있다(Hayes et al., 2001).

우세형에서 초기 다수와 소수는 모두 본인들의 입장을 나타내려 한다. 이후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면, 충돌하고 싸우려 하기 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든다. 이는 충돌, 저항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충돌형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는 초반에 본인들이 다수의 우세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실히 나타내려

14) 다수의 표준편차는 모두 소수의 표준편차보다 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각 유목들이 중심치로 부터 벗어난 정도가 다수가 소수보다 크다는 것이다.

15)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극우세형의 다수는 ‘W형’ 반면 소수는 매우 완만한 ‘V형’에 가깝다.

한다. 이후 소수의 반응을 예의 주시해 나가며 자신들의 의견표명 정도를 서서히 줄여 나간다. 반면 소수는 다수에 대한 적극적 저항 보다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는데 초점을 맞춰 나간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충돌형’의 경우 다수와 소수 간 구분은 분명치 않다. 만일 소수가 좀 더 조직화 된다면 언젠가 다수의 입장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두 집단 간 끊임없이 충돌하는 결과로써 W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극우세형은 앞서의 우세형과는 다소 다른 의견대립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유형에서 절대적 다수와 절대적 소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수는 주변 눈치 봄 없이 어느 시점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결과적으로 충돌형과 유사한 W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자그마한 소수의 반응에도 주저 없이 반응한다. 이는 뚜렷한 다수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소속감이 표현의 적극성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인의 의견표명 능력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인터넷 환경 하에서 우세(優勢) 입장의 다수는 물론 열세(劣勢) 입장의 소수 역시도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집단 모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원래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다. 기존연구에서 일반적 소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고립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다수의 의견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Noelle-Neumann, 1974, 1977, 1989).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온라인에서는 소수여서 무조건적으로 침묵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보여주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수와 비교하여 그 정도가 크지 않을

뿐이었다. 단 절대적 소수집단에서는 의견표명 초반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저히 낮아지는 의견표명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 의견표명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내용적으로 선행연구자(주민욱, 2015, 2016)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내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를 새롭게 연구검증 하였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기존연구자(박성희·박은미, 2007; 朱珉旭, 2012)의 연구 틀/framework)을 중국의 연구사례를 가지고 재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표명에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욕’, ‘인신공격’, ‘인종주의 발언’ 등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 인해 중국인은 자신의 의견표명에 소극적인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주변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한 이들의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중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중 양국 간 이어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해양구획 문제가 있다. 중국의 이어도 관련 언론보도와 학술논문을 내용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만(주민욱, 2016), 그 언론보도들의 댓글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의 실제 여론이 담론화 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 댓글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 한편으로는 다음의 연구 상의 한계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첫째 개개인의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 ‘ID’와 부분적으로 공개된 ‘IP주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견표명 행위를 살펴보려 하였으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개개인의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집단 다수와 소수의 의견표명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다수와 소수가 서로 역전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해당 댓글들에 대한 분석기준 강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코더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복댓글’, ‘동일 ID 유사내용’, ‘중립입장’ 그리고 ‘스스로 모순되는 내용’ 등을 연구 분석에서 필터링하였다¹⁶⁾. 하지만 그 분석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댓글 및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 표집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면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사례만을 통해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 간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상호 비교, 검증하였으면 한다.

16) 각 연구주제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 구분은 다수와 소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임으로 해서 모든 댓글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애매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코더 간 의논을 거쳐 찬성/반대 의견을 판단하였다. 주로 ‘댓글 작성자(作者) 중 최초 의견 게시자(樓主)의 글 일부를 반복적으로 인용’, ‘자신의 댓글에 뚜렷한 개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그리고 ‘앞뒤 서로 다른 의견 게시’가 자주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모두 연구분석에서 제하였다.

參考文獻

- 권상희 · 김익현, 「온라인 댓글 인식과 댓글 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댓글의 신뢰도와 인터넷 뉴스 수용자의 수용경향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2호, 2008, 44-78쪽.
- 박성희 · 박은미,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슈 유형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관한 연구: 인터넷 여론조사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9호, 2007, 284-323쪽.
- 양기석, 「시끄러운 소수와 조용한 다수」. 『언론학연구』 제4집, 2000, 41-66쪽.
- 양승찬, 「사회시스템 성격을 고려한 침묵의 나선이론 연구: 의견분위기 지각과 공개적인 의견표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통권 20호, 1998a, 72-116쪽.
- _____,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연계성: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과 공개적 의견표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통권 43(2), 1998b, 109-141쪽.
- 주민옥,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와 체면관」.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2호, 2013, 74-94쪽.
- _____, 「한중(韓中)간 체면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에 미치는 영향」. 『中國學』 第53輯, 2015, 269-292쪽.
- _____, 「한중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표명 행위 비교연구」. 『中國學』 第54輯, 2016, 287-305쪽.
- _____, 「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중국어 자료에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52호, 2016, 329-360쪽.
- 최동성 · 최성은 · 최용준, 「인터넷 포털뉴스 댓글의 여론형성 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8호, 2008, 311-358쪽.
- Hayes, A. F., Shanahan, J., & Glynn, C. J., "Willingness to Express One's

- Opinion a Realistic Situation as a Function of Perceived Support for That Opi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 2001, pp.45-60.
- Ho, S. S., & McLeod, D. M., "Social-Psychological Influences on Opinion Expression in Face-to-Face an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5, 2008, pp.190-207.
- Katz, C. J., & Baldassare, M., "Using the 'L-word' in Public: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 Conservative Orange County, California". *Public opinion quarterly*, 56, 1992, pp.232-235.
- Kim, S., Han, M., Shanahan, J., & Berdayes, V., "Talking on 'Sunshine in North Korea':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as a Theory of Powerful Mass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 2004, pp.39-62.
- Lin, W. K., & Pfau, M., "Can Inoculation Work Against the Spiral of Silence? A Study of Public Opinion on the Future of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9, 2007, pp.155-172.
- Noelle-Neumann, E.,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4, 1974, pp.43-51.
- _____, "Turbulences in the climate of opinion: Methodological Applications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Public opinion quarterly*, 41, 1977, pp.143-158.
- _____, "Advances in Spiral of Silence Research". *KEIO Communication Review*, 10, 1989, pp.3-34.
- Price V. & Allen S., "Opinion Spirals, Silent and Otherwise: Applying Small-Group Research to Public Opinion Phenomena". *Communication Research*, 17, 1990, pp.369-392.
- Salwen M. B., Lin C. & Matera F. R., "Willingness to Discuss 'Official English': A Test of Three Communities", *Journalism quarterly*, Vol.71, 1994, pp.282-290.

- Shamir, J., "Information Cues and Indicators of the Climate of Opinio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the Intifada". *Communication Research*, 22, 1995, pp.24-53.
- _____, "Speaking Up and Silencing Out in Face of a Changing Climate of Opini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 1997, pp.602-614.
- Taylor D. G., "Pluralistic ignorance and the spiral of silence: A Formal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46, 1982, pp.311-335.
- Tokinoya, H., "Testing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East Asia". *KEIO Communication Review*, 10, 1989, pp.35-49.
- _____. "A Study o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Japan". *KEIO Communication Review*, 18, 1996, pp.33-45.
- 陈华明·李畅, 「当下中国互联网语境中的‘沉默的螺旋’(현대 중국 인터넷 언어환경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西南民族大学学报』总第210期, 2009, 153-157쪽.
- 崔蕴芳·沈浩, 「面子’与‘沉默的螺旋’——一种检验和探索(체면과 침묵의 나선이론)」。『现代传播』总第137期, 2005, 48-52쪽.
- 郭光华, 「论网络交往中‘沉默的螺旋’假说的局限(온라인 교류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 가설의 한계)」。『湖南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第31卷(第6期), 2002.
- 马学清, 「‘沉默的螺旋’在传统大众传播环境和网络传播环境中表现方式的差异(전통 매스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하에서 침묵의 나선의 표현방식의 차이)」。『重庆邮电学院学报』第3期, 2005, 374-378쪽.
- 梅琼林, 「‘沉默的螺旋’在短信中的适应性初探(문자메시지 안에서 침묵의 나선현상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广东社会科学』第5期, 2007, 184-189쪽.
- 吴飞, 『传媒影响力(매스미디어 영향력)』. 北京: 中国传媒大学出版社, 2005.
- 夏志梅·彭光芒, 「网络空间中的‘沉默的螺旋’理论的局限性(온라인 공간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의 한계성)」。『北京理工大学学报』第8卷(第3期), 2006, 16-21쪽.

- 谢新洲, 「‘沉默的螺旋’假说在互联网环境下的实证研究(온라인 환경 하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 가설에 대한 실증연구)」, 『现代传播』, 总第125期, 2003, 16-22쪽.
- 杨芳芳·晋晓兵, 「再论‘沉默的螺旋’理论在网络时代的变迁(인터넷 시대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의 변천에 관한 재논의)」, 『人民网』, 2005.
- 朱珉旭, 「网络交往环境下的个人态度与意见表达-‘沉默的螺旋理论’之检视与修正(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태도와 의견표명-침묵의 나선이론에 대한 재검증과 수정)」, 『武汉大学博士学位论文』, 2012.
- _____, 「当代视域下沉默的螺旋理论的反思(현대적 시각에서의 침묵의 나선이론에 대한 재조명)」, 『国际新闻界』 第1期, 2014, 66-75쪽.

Abstract

A practical study on the Chinese opinion expression behavior in the Internet

Ju, Min-uk

The research mainly focuses on the Chinese actions of expressing opinions on the Internet, and observes the Chinese groups-majority and minority- of public opinion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how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influences other's opinion expression. It's a very effective method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and opinions expression in Internet boards. Ever since Noelle-Neuman put forward this theory, there are hardly any researches on the opinions in this spac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first, as time goes by, both the majority opinions and the minority opinions show the tendency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which are useful for them. Although they realize the existence of the other party, they continue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to overcome the pressure of the other party.

Second, the majorities and the minorities can both bring positive influence mutually. As time goes by, if a variable is stronger (weaker), the other variable is also stronger (weaker). From this results we know that in all research examples, the expression of the majority opinions and the minority opinions change forms similarly.

Key words : Chinese, Internet, opinion expression behavior, theory of silent spiral, majority and minority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